



시그니처 메뉴(위)와 베이커리.

카페야? 갤러리아? 한옥의 멋에 취하다

보성 춘운서옥

창문 밖 사계절 내내 살아 움직이는 풍경화
김대중 전 대통령 친필 휘호 등 3천점 전시
베이커리·자색고구마 음료 등 메뉴도 다양

보성 춘운서옥은 한옥 펜션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다 카페까지 오픈해 단기간에 보성의 명소로 자리 잡은 곳이다. 뒤이어 오픈한 한옥 카페가 더욱 인기다.

카페명인 '춘운서옥'은 어려운 발음과 카페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딱딱한 이름에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깊은 뜻이 담겨있다. '춘운'은 주인인 윤영돈 사장의 호(號)다. '봄에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서옥'은 '고서가 많은 집'이라는 뜻이다.

춘운서옥은 볼거리가 가득하다. 카페 입구에 서서 내려다보면 마치 무릉도원 같은 자태를 뽐내는 전통 한옥의 멋에 놀라게 된다. 춘운서옥의 모태는 조선시대에 지어진 임진영 가옥이다. 1987년 전남도 문화재자료 제152호로 지정됐으며, 일반적인 상류 주택의 배치 방법과 달리 'ㄷ'자형 배치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윤 사장은 이를 인수한 후 2011년부터 5년간의 보수공사를 거쳐 전통가옥 본연의 모습을 복원시켰다.

본관인 카페 맞은편에는 깊지 않은 동굴이 자리하고 있는데, 현재는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는 좌석으로 이용 중이다. 레스토랑, 와인바 등을 운영하려고 생각한 그가 동굴을 만든 지 어언 8년째. 이곳은 사계절 내내 평균 16~22도를 유지해 와인 같이 온도에 민감한 술을 저장하기 안성맞춤인 장소다.

윤 사장은 "손길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손색이 없고 한옥 외 이색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 오픈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굴을 더 깊고 정교하게 만들어 수년 내 완성할 예정이다. 윤 사장은 "와인을 좋아해 와인바를 만들려고 한다. 의외 허백련 선생의 작품 등 남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작품을 많이 소장하

고 있으니 갤러리를 여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현재 그는 송운회, 소파 송명회, 효봉 허소, 석전 이희순, 송곡 안규동, 구당 이법재, 추봉 선종석 등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3,000여 점 이상 보유하고 있다.

현재 카페 내 걸려있는 서화들은 적게는 수백, 많게는 억대를 호가하는 작품들이다. 그는 금액이나 희귀성과 상관없이 가까이 손님들과 공유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나 미당 서정주 선생의 친필 원고, 오지호 화백 등의 작품이 걸려있는데 계절에 따라 가진 작품들을 교체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메뉴는 자색고구마 피스타치오 음료와 단호박/흑임자 컵케이크였다. 자색고구마 피스타치오 음료는 열은 초록빛의 음료 밑에 자색고구마 베이스가 깔려 색감의 대비가 무척 아름다웠다. 피스타치오 향이 가득 퍼지지만 견과류의 느끼함 없이 깔끔했다. 단호박/흑임자 컵케이크는 적당한 달달함과 고소함이 입안에 퍼지는 맛이 일품이었다. 기본이 되는 아메리카노는 산미가 풍부해 베이커리류와 잘 어울린다.

이곳을 제대로 즐기려면 3번은 방문해야 한다. 별이 잘 드는 날, 밤의 야경을 즐기기 위해, 비 오는 날. 한옥 카페는 언제 방문해도 멋스럽지만, 마니아들은 비 오는 날 방문한다. 낙수 소리를 벗 삼아 창가에 앉아 마시는 커피 한잔이 올해 가장 멋진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민슬기 기자



고택에 전시된 작품들.



동굴 내부.



카페 외부 전경.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차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